

간담사랑 소식지

한동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한동으로
그 분은 나의 멘토이십니다
졸업식 날의 특별한 연사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의 5월 들여다보기
새내기들을 향한 선배들의 선물

한동소식

We love You Japan,
You're not alone!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하는
"제1회 한동 멘토링 아카데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잡잡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40번째 갈대상자 소식지를 엮으며...



포항시 남송리 어느 작은 언덕에는 갈대군락이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와도 같은 이 땅에서 갈대들은 서로에게 의지해 비바람과 추운 겨울을 견뎌왔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갈대들은 주님의 따스한 햇살 아래 깊고 그윽한 향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정취를 더하여 갑니다. 갈대들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서로에게 속삭입니다. 갈대의 씨앗이 여물면 이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겠다고요.

한동의 작고 소중한 속삭임들, 그 이야기 한 올 한 올을 정성스레 모으고 다듬어 만든 갈대상자를 이제 후원자 분들께 띄워 보냅니다.

갈대상자 소식지는 한동대학교의 간증이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산 역사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후원자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주께서 한동에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의 순간을 후원자님께 전할 것입니다.

왼쪽부터 신승화(국제어문 05), 김예슬(법 07), 김민정(산업디자인 04), 박성진(경영경제 07), 이용복(언론정보 08), 손일영(언론정보 03), 김철민(산업디자인 02)입니다.

CONTENTS

한동인

- 06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한동으로
- 08 추억을 한아름 담아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 10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 12 졸업식 날의 특별한 연사
- 14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며 전파선교에 힘써요

함께 엮는 갈대상자

- 17 한동에 내 자녀 대신, 사랑을 담아 보냅니다
- 19 그 분은 나의 멘토이십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 24 너는 하나님의 열매, 너는 하나님의 사랑
- 26 교수님 사랑해요
- 28 사탕이 대통령 사랑이 새록새록
- 30 한동 생활관을 떠나, 꿈을 찾아 갑니다
- 32 우리만의 새로운 생활공동체가 생겼어요
- 34 새내기들을 향한 선배들의 선물
- 36 먼저 다가가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한동 소식

- 40 We love You Japan, You're not alone!
- 42 TREE PLANET 김형수 대표의 맑은 콘텐츠로 세상 바꾸기
- 44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하는 제1회 한동 멘토링 아카데미
- 46 김영길 총장님 제17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취임
- 48 학교를 넘어 포항으로 퍼지는 커피내음

한동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한동인의 삶을 엿보는 공간.
이번에는 어떤 한동인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한동으로

한동을 소망하고 기도했던 새내기 이야기

어느 때보다 쌀쌀했던 한동풍이 조금은 누그러질 무렵 한동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새 캠퍼스는 흐드러진 벚꽃과 조금씩 짙어가는 녹색 잎들로 가득 합니다. 추운 날보다 따뜻한 날이 많아지고 가벼운 옷차림의 학우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밝고 가벼운 기운이 한동을 가득 채우는 봄입니다. 이러한 봄의 한편에는 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의 설렘과 긴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벗어나 한동에 새로이 등지를 하게 된 11학년 새내기 장하내 학우를 만나 보았습니다. “한동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만 같아요”라며 싱긋 웃는 장하내 학우. 고등학교 때부터 한동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새내기에게는 어떤 설렘과 긴장이 있을까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고등학교를 다니던 장하내 학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한동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었던 당시에는 신실한 기독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한동에 관심 있는 예비 대학생들에게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알려주고 한동을 체험할 수 있는 G-IMPACT 캠프에 참여하고부터 한동을 꿈꾸며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캠프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녀는 G-IMPACT 캠프를 통해 신실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하며 부족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마음을 키워 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 한동에 들어가고 싶다는 기도를 계속 했고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실업계 학생을 위한 입학전형이 마침 2011년 신입생을 위해 생긴 것입니다. 작년 전형에서 실시된 이후 다시 없어진 실업계 입학전형을 보면 장하내 학우를 위한 하나



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성경 과목인 ‘크리스찬 파운데이션’을 수강하며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로 알고 있는 새내기인 그녀. 성경을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장하내 학우는 최근 11학년 축구 동호회 센텀에서 시작한 기도회를 통해 동호회원들과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동에서 성경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앞으로 신앙이 더욱 성숙해 지기를 바랍니다.

장하내 학우와 같이 한동을 기도로 준비하는 예비 한동인들이 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한동의 일원이 됐을 때 소망했던 바와 설렘 다른 면이 있더라도 한동 안에서 이겨내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내기들의 부푼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학생들은 더욱 더 한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는 노력을 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추억을 한아름 담아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동, 그리고 한동인과 함께한
소중한 한 학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인 여러분.

이번 봄학기 들어 한동 캠퍼스에 키 크고 머리가 하얗게 쏜 이준마 외국인이 종종 보이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저, 헬렌 스테르크(Helen Sterk) 교수랍니다. 저는 한동대의 자매학교인 미주 미시건에 있

는 캘빈칼리지에서 교환교수로 왔답니다. 한동과의 인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5년 전, 한동대에 처음 방문했었는데, 그 때 '기독교와 성, 그리고 여성주의'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제가 캘빈칼리지 언론정보 문화학부의 학부장일 때, 한동의 이선영 교수님이 교환교수로 오셨었죠. 작년에는 신순철 교수님과 그의 가족 또한 캘빈칼리지에 오셨었는데, 그 때도 제가 캘빈을 안내했답니다. 그렇게 두 분과 인연이 맺어지며 언젠가 저도 꼭 한동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동에 있네요.

한동은 제가 예상했던대로 너무나 아름다워요. 특히 한동의 '봄'은 너무나 특별했어요. 한동 곳곳에서 하늘거리는 벚꽃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저와 학생들로 하여금 야의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지요. 또한 한동의 특별한 문화에 반했어요. 캠퍼스 곳곳에서 축구와 농구를 하거나, 밴드 공연이 펼쳐지더군요. 한국 문화와 음식을 접하는 것



도 참 즐겁습니다.

모든 한동인들이 절 반겨주고 도움을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많은 학생들이 제 연구실에 놀러와 심심할 겨를이 없답니다. 또 캠퍼스와 포항 시내 구석구석을 가이드 해주기도 하고, 포항 맛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고는 해요. 주말에는 학생들과 영화도 보고, 포항스틸러스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죠. 제가 아플 때 과일을 가져다주는 학생도 있고, 감기에 걸릴 때 약국에 바래다주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제가 얼마나 한동에서 사랑받고 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미국에는 어머니날(Mother's Day), 아버지날(Father's Day), 어린이날(Children's Day)은 있어도 스승의날(Teacher's Day)이라는 것은 없는데, 얼마 전 언론정보문화학부 학생들이 열어준 사은회를 통해서 한국에 스승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었지요. 교수님들이 서로 기도제목을 나눈 후 학생들이 교수님을 몸에 손을 대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답니다.

전 한동에 있는 이번 봄학기 동안 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 문화콘텐츠세미나, 이렇게 두 클래스를 가르쳤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 실력을 걱정하지만, 그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그에 대한 아이디어는 캘빈의 학생들과는 다른 신선함을 주었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작업들은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도 전을 줍니다.

이번 봄학기를 마치고 전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까지 열심히 한동인들과의 추억을 만들 거예요. 제가 보고 느끼는 한국과 한동, 사진들은 제 블로그(<http://heleninkorea.posterous.com>)에 꾸준히 포스팅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세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한동인 모두들!

- 사랑을 담아, 헬렌 교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동, 한국,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찰리(Charlie Slovak)는 한동대학교와 자매 결연
을 맺은 미국 텍사스 주에 위치한 르투나 대학교
의 학생입니다. 한동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다녀
간 찰리는 졸업 후에 고향인 미국에 머무르지 않
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가고 있습니다. 매년 르투나 대학교로 건너오는 한
동 학생들을 잘 챙겨주고 도와주는 찰리는 한동의
교환학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습니다. 그런 찰리
가 한국으로 건너와 자신의 비전에 한 걸음씩 다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찰리의 이
야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르투나 대학교에는, 매 학기마다
열 명 남짓한 한동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옵니
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한동의 학생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고, 그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중국에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아시아로 가고 싶은 소망을 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한동 학생들
을 사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
니다. 매마침 채플에서 한동대학교에 관한 광고를

듣게 되었고, 여건이 되어 교환학생으로 한동대학
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동에서의 생활은 정말 좋았습니다. 국제 생활관
에서는 여러 국적을 가진 친구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팀모임에서는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동의 외국인 학생 및
교수들이 참석하는 예배인 HIC(Handong Inter-
national Church, 한동국제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과 통·번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등을 통해 하
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많은 이들을 만나게 하셨
습니다. 그들을 통해 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
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저를 위해 수 많은 사
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동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했지만, 제가 미국에
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는 한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 선교 활동을 다녀 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시어, 그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세계 각지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인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들의 모습이 궁금해 설렘을 가득 안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경기도 안산의 한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힘들뿐 아니라, 섬기는 교회 역시 집에
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가끔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국인 친구들조차 시간
이 잘 맞질 않아 만na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로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단련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안주하고 의존하기 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
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매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왔기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다음 스텝을 위해 기도하
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에 나갈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갈지도 모를
니다.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택하신 분임을 알고 있기에 두
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역사하고 계실 테니까요.



졸업식 날의 특별한 연사



제13회 학위수여식이 지난 겨울에 열렸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이젠 더 이상 미래를 향해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된 졸업생.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려... 그 다짐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주먹이 꼭 쥐어 집니다. 하지만 한 발 더딘 세상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과연 한동대를 졸업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위수여식의 마지막, 심규진 동문이 졸업생 대표로 나와 인사를 합니다. “지금부터 한동대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짧게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갑자기 들고 있던 대본을 내려놓습니다. “원래 준비한 대본이 있으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하면 굉장히 멋있고 위대한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을 가르거나 포도주를 술로, 아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말이 엉키자 좌중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심규진 동문도 웃어 넘기고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 한 군데서 기도하면 모두가 전도되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만삼천오백마일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멋진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

다. 그런데 저는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들어갔다는 반전에 좌중은 까르르 웃으며 앞으로의 이야기에 환호하며 기대합니다. 심규진 동문의 재치 넘치는 입담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사팀에 배정되었는데 되게 멋진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정말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비전을.....이 아니었습니다. 전무님 방이 제 옆자리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전무님 방 책상을 정~말 깨끗하게 닦고 화분 6개에 있는 난에 물을 주고 하루종일 김 대리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한동대를 졸업하고 나서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고 기다렸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좌중은 모두 심규진 동문의 솔직한 말에 빠져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고민과 기도 속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각 처소에서 부여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고 그것 가운데서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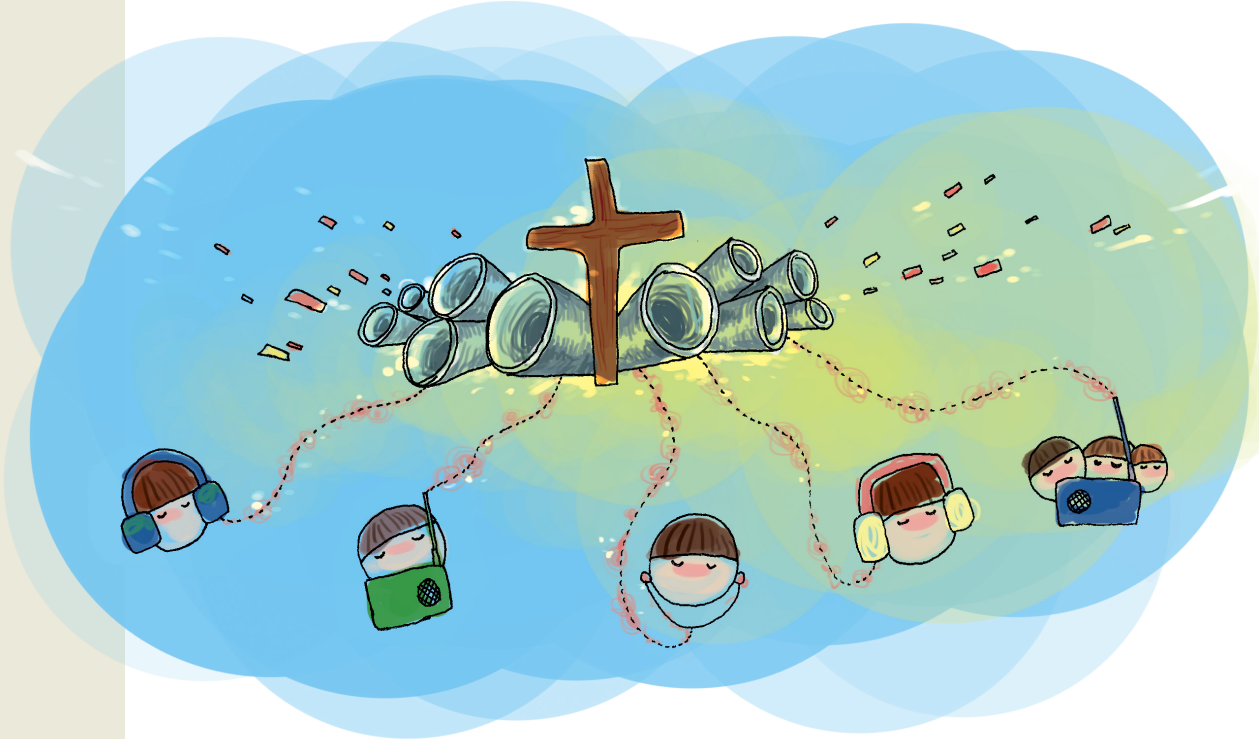
목사님이라도 된 듯한 심규진 동문의 말과 행동에 모두 “할렐루야”하고 웃으며 답합니다. “우리 그 위치에서 한동인의 정직과 신앙을 흘려보내는 귀한 졸업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규진 동문은 총장님과 교수님 목사님들 교직원 선생님들 선배님 후배님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라며 크게 한숨 쉬는 심규진 동문의 눈시울은 이미 붉혀져 있고, 목소리는 울먹입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어머니께 감사 드리고... 아 왜 이러지?” 심규진 동문의 솔직하고 귀여운 말에 좌중은 떠나갈듯이 환호의 박수를 보냅니다. 심규진 동문은 애꿎은 마이크만 이러 저리 만지다 결국 가슴속에 남아있던 말들을 한마디로 담아 입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곤 부끄러워 얼른 강단에서 내려가려는 것을 김영길 총장님이 뒤에서 붙잡고 꼭 안아줍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따뜻했던 한동대만의 학위수여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며 전파선교에 힘써요

극동방송에서 근무하는 이효진 동문을 만나다

한동을 졸업한 동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어나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효진 동문(국제어문 04)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파선교를 하고 있는 극동방송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해내고 있는 그녀도 역시 한동대학교에서 배운 지성과 영성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Q.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A. 04학번 국제어문학부 졸업생 이효진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갈대 상자를 통해 한동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 드릴게요.

A. 2009년에 입사해 현재까지 극동방송 (서울 중앙사) 회장님이신 김장환 목사님 비서실에서 해외 일정 정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지금의 일에 몸담게 되셨나요?

A. 박해경 교수님과 신혜인 교수님의 추천으로 극동방송 입사 면접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난이 심한 시대에 감히 꿈꿔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점들을 지닌 직장이었기에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마음부터 앞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국내는 물론 북한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복음 방송사로 선교를 향한 저의 비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곳이었으며, 그 동안 갖고 있던 달란트인 영어를 여러 해외기관과의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Q.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였나요?

A. 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며 믿음을 지켜가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 담긴 편지를 읽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져 있는 제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북한주민들의 힘겨운 삶 속에 미약하나마 한 줄기 빛이 되는 제 사역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Q.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한동대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해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 있었나요?

A. 한동대에서 형성된 성숙한 크리스천의 마음이 저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새롭게 제 자신을 다지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동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또 한동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계시는 동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서로를 위한 중보의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한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에 내 자녀 대신, 사랑을 담아 보냅니다

하나님께
영혼
갈대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로 바라보는
후원자들의 간증을 담았습니다. 한동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삶의 향기로
나타나는 분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학기 준비로 분주하던 2010년 어느 겨울, 편지 한 통이 한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 정시 합격자였던 옥소원 학생 엄마’라고 소개를 한 편지에는 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후원하기로 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시 합격자였던’이라고 소개한 편지 글과 300만원이라는 후원 금액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정시 면접 전날 옥소원양과 가족은 일산에서 이 곳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겨울의 상큼한 바다내음과 농촌의 한적함이 이들 가족을 먼저 반겨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주차 안내를 하며 친절하게 주차가 가능한 곳과 학교 건물위치를 알려주는 학생부터 면접 날 새벽기도에서 특송을 불러주는 재학생들의 진심 어린 섬김에 따뜻함을 느끼는 모녀였습니다. 옥소원양의 어머니이신 이항미 후원자님은 편지를 통해 “부흥회를 연상케 하던 면접 전날 전야제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안온함을 느낄 수 있었던 캠퍼스, 정겨움이 묻어나던 기숙사에서의 하룻밤은 저희 모녀에게 의미 있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한 켠 포항이란 곳에 주님의 보배 같은 학교가 이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며 그날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동에서의 감동은 모녀가 한동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이들 모녀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를 주셨습니다. 옥소원양이 가고 싶어했던 한동대학교와 서울교대에 동시에 합격한 것입니다. 모녀는 주님께서 가리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선 옥소원양과 어머니에게 동시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옥소원양이 서울교대를 다니며 그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교대 등록금이 한동대보다 300만원이 적는데 그 금액만큼을 한동대에 꼭 헌금하라 하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기부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이항미 후원자님은 편지를 통해 “지주 한동대를 품고 기도하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보다 더 친근하고 이제 정말 한동대가 마치 제 모교라도 되는 것처럼



럼 가깝게 느껴집니다"라며 한동과의 인연을 이야기 합니다.
옥소원양은 현재 서울교대를 다니며 IVF 기독교 동아리와 일산충신교회 청년부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금 고지서가 올 때 마다 어머니께 "엄마, 한동대에 보내시는 것 잊으시면 안돼요"라며 다짐을 하곤 합니다.

한동의 아들 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한동이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과 가까이에서도 멀리서도 이어지는 중보기도가 한동을 지탱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분은 나의 멘토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을 인정도 부정도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상태로 결혼했다. 처음 몇 년동안 임신이 되지 않던 나에게 독실한 신앙을 가지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기적같이 아들을 낳았다. 그것도 5년만에.

그러나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며 세상적 가치관으로 양육하기에 들떠 있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역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우연히 이웃으로 만난 K권사님께서 신앙이 좋은 것을 아시고 친정어머니는 믿음 없는 딸인 나를 부탁하고 가셨다. 그때부터 그분은 거의 매일 사명감으로 우리 집을 방문하시고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사치스럽다며 간섭하셨다. 솔직히 그때는 너무 열정적인 관심이 부담스러워 도망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철없고 세속적인 나를 고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K권사님 옆으로 이사시킨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분의 전도 열매이자 제자가 되었다. 내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내 신앙 성장을 기뻐하셨던 분. 내 삶의 간증에 첫 번째로 등장인물이 되신 K권사님!! 서로 다른 동네로 이사하면서 오랫동안 거의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권사님께 배운 대로 열심히 흉내 내며 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의 첫 입학생이 되었고, 아들이 3학년이 되던 때 하나님의 대학에는 광풍이 몰아쳐 왔다. 나의 아들, 영민이를 포함해 단기 선교를 갔던 학생 2명의 죽음과 온갖 수모를 당하신 총장님이 법정구속이라는 최대의 위기에 휩싸였을 때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동대학이나 슬픔에 잠긴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 필요한 시기였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며 회의에 빠진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왔고, 나 역시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요나처럼 살려주지 않는

지 서운한 생각이 엄습해왔고, 지옥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 갈 때 마귀는 내 믿음이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나를 흔들어들었다. 나는 인간됨을 다해 추락하는 믿음의 밧줄을 움켜잡고 하나님을 향해 습관처럼 부르짖었다. 나의 이성과 지성, 감성, 영성을 통해 제발, 제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물입해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분과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다. K권사님께서 영민이가 피지선교 중 실종된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아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며 학교로 찾아오신 것이다. 1997년 10월, 실종 2개월 후, 70대 할머니가 되신 권사님께서 대구에서 포항까지 직접 영민이가 다닌 한동대학을 방문하시고 거액의 현금을 무명으로 하신 뒤 총총히 떠나셨다. 누구시냐고 묻는 말에 영민이가 어릴 때 이웃에서 친하게 지내고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만 남기시고, 총장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K권사님을 떠올리긴 했지만, 확실히 알고 나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감격이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신앙을 가지신 K권사님을 사신으로 급히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소식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과 슬픔을 단번에 몰아내고 천국을 회복할 만큼 큰 위로가 되었다.

권사님은 어떻게 위로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고통 받는 한동대학을 위로 하라는 감동을 받으셨단다. 모든 것을 아

시고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권사님을 통해 경험하게 하셨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그런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로부터 어느새 14년이 흘렀다. 지금은 80대가 되신 권사님, 결코 부유하지도 않고, 너무나 소박한 권사님께서 평생 모은 그 피같은 재산을 오로지 권영민 순교장학금으로 수 년 동안 기쁘게 내어주셨다. 금년 4월에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아낌없이 털어주시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을 뿐, 오히려 즐거워하며 천사같이 웃으시던 권사님. 나는 그 돈의 가치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얼마나 정직하고 또 알뜰한 것임을 너무 잘 알기에 목이 꼭 메고 눈물겹기만 했다.

권사님께서 가난한 가정의 장녀로 태어나 어렵게 중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 중퇴할 위기에

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 드렸고 그 때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하셨다. 그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 절대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쓰겠으니 “하나님 저를 한번 시험해보세요”라고 서원하셨다고 한다. 그 서원한 것을 평생 지키며 살았다고 좋아하시는 권사님의 얼굴에는 햇살 같은 미소가 가득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펜토, K권사님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장차 스테반 때처럼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서서서 K권사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나는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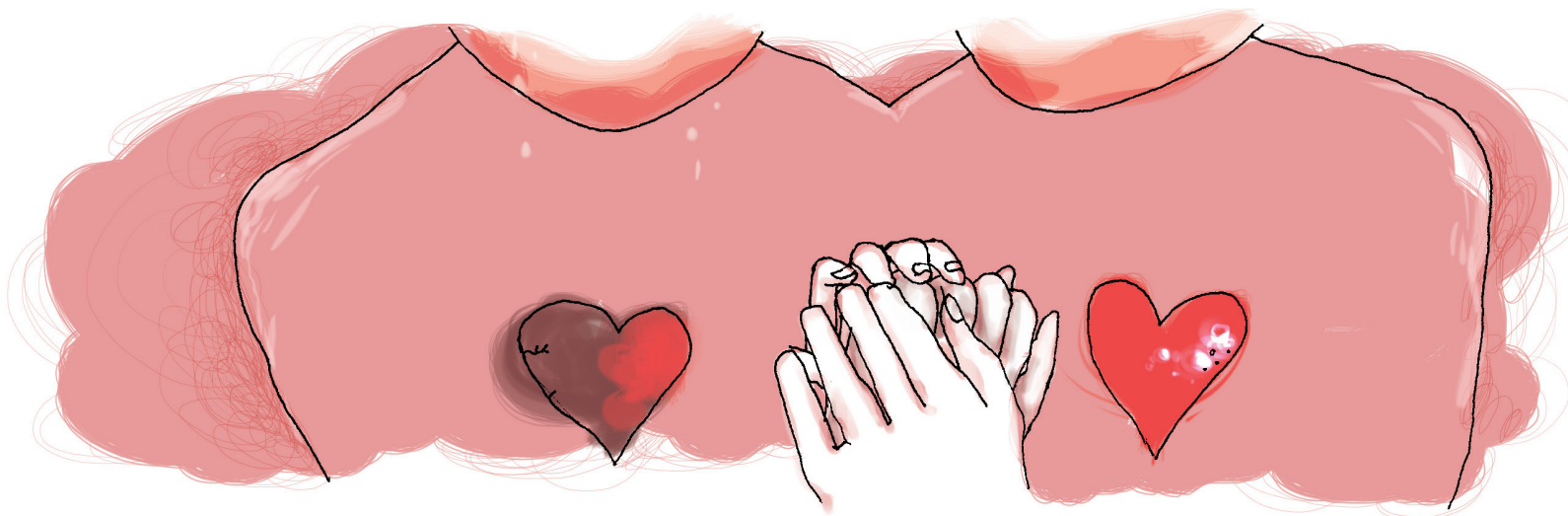
“때로 인생을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생애에 들어오면 이해가 된다. 그리고 단절있던 고난의 과거가 해석되고 오늘 현실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다”던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피지에서 우리가 올 때, ‘여자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가운데

서 찾으려 하느냐(눅 24:5)’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했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애들아,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나와 함께 있는 영민이를 너희는 바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영민이는 지금 내 집에 나와 함께 있단다’라고 하신 음성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가혹하게, 그리운 이름 하나 가슴에 못 박고 살 수 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에 K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건널 수 없는 근심을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 대신 찬송을 부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

김은주 권사님 (故 권영민 동문 모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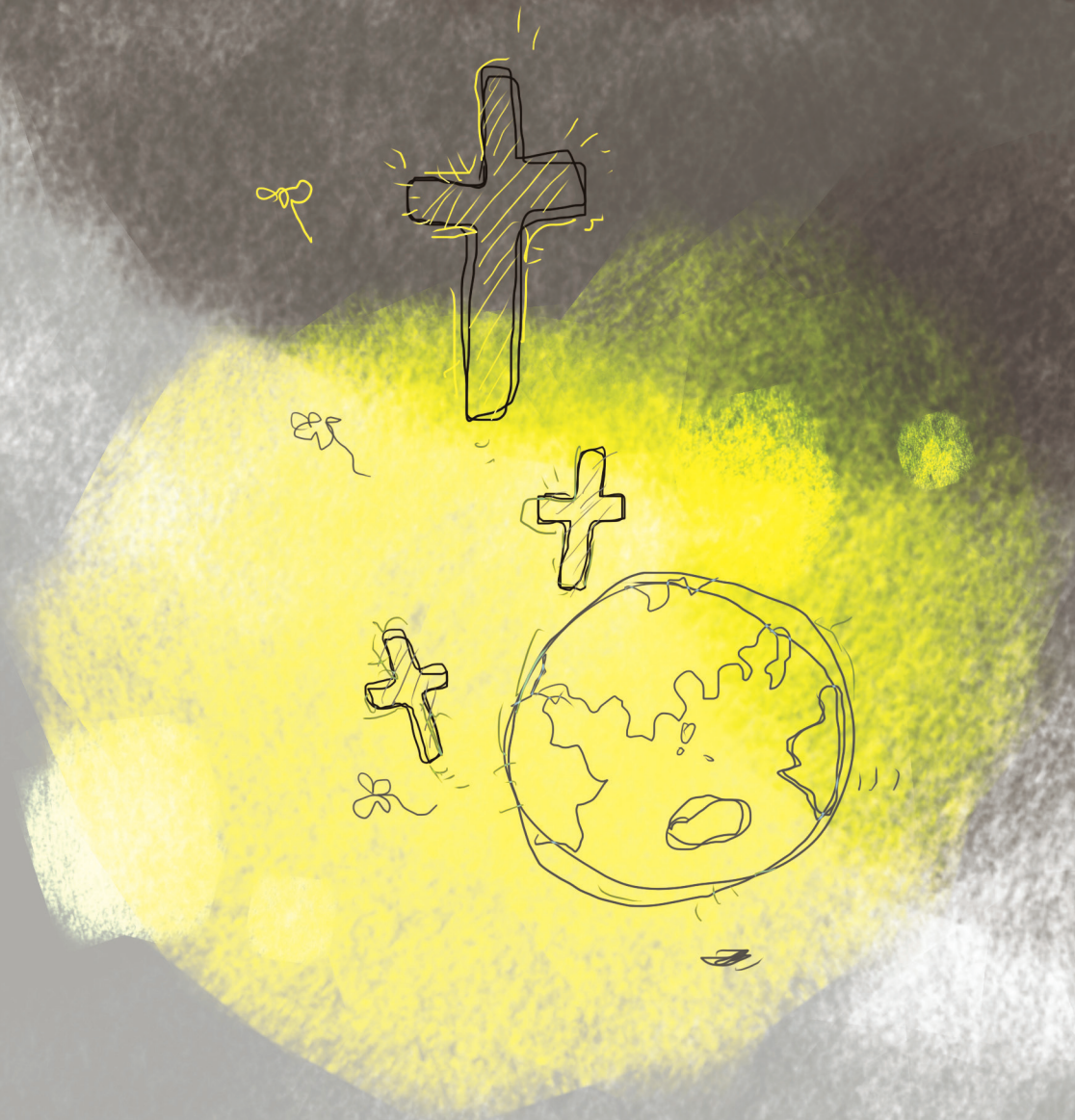


Why not
Change

the
World?

“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한동에 모였습니다. 한동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풀어봅니다.

”



너는 하나님의 열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과는 조금 다른 한동만의 성년식



5월 16일 한동의 밤은 장미와 갓가지 향수들이 뿜어내는 향기와 촛불의 그윽한 불빛과 축복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한동인들이 서로를 축하해주기 위해 여기저기서 팀마다 축하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에 만 20세가 된

청년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 격려하는 날입니다. 한동의 청년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아울러 한동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날로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



습니다.

지난 3월 13일 화이트데이 때 여학우들을 위해 포항 시내로 가서 수 백개의 사탕을 공수하러 갔던 이들은 이제 성년이 되는 91년생 학우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학교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좋은 장미와 향수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비장함마저 엿보입니다. 학교에 남아있는 다른 학우들은 91년생 학우들에게 건네줄 편지를 씁니다.

김준형 교수님 팀의 팀장인 정현빈 학우는 “제가 성년이 되던 해, 한동에서 보낸 성년의 날의 감동을 아직 간직하고 있어요. 그 감동을 지금 성년이 되는 동생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장미와 향수, 편지, 축복송은 성년이 되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평생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성년이 되는 한 학우는 “지난 화이트데이 때도 무척 감동했는데, 성년의 날에 이렇게 팀 사람들이 모두 축복해주니 너무 행복해요. 한동에 와서 너무 반기만 하네요”라며 감동을 전합니다.

성년의 날의 장미는 이제 사랑을 해도 될 나이를 의미하며 향수를 선물하는 것은 나의 향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한동인들에게 장미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이며 향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지 말자는 의미가 아닐런지요?





교수님! 사랑해요~

스승의 날, 교수님 오피스 풍경

Why Not Change the World?

사탕이 대롱대롱 사랑이 새록새록

3월 13일 저녁, 강사용 교수님 팀의 남학우들이 한 방에 모두 모였습니다. 포항 시내에서 직접 공수해온 수백 가지의 사탕들로 방 안은 사람 반 사탕 반으로 꽉 찼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 많은 인파가 모였을까요? 바로 팀의 여학우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생활관 휴게실은 이미 화이트테이를 준비하는 다른 팀 학우들로 꽉 찼습니다. 천혜의 요새인 남자생활관 휴게실을 점거하지 못한 여러 팀들은 혹시나 준비하는 모습을 자기 팀 여학우들에게 들킬세라 제각기 학교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사탕을 꾸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팀의 맏언니들은 사탕 냄새를 맡고 시찰까지 나왔습니다. 한동에서 화이트테이를 무려 3번이나 경험한 이성림 학우는 “매년 받는 사탕이지만 매년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화이트테이가 세속적이고 상업적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적어도 한동의 화이트테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사탕 꽃은 세상 어디에도 없죠!”라고 말합니다.

윤상현 교수님 팀의 맏형인 이유업 학우의 지시에 따라 새내기들이 작은 주머니에 사탕을 종류별로 주워 담습니다. 사탕이 부족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손에는 사탕이 한 움큼 쥐어져 주머니 속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리본으로 주머니 끝을 동여매고 이름을 붙입니다. 팀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 4학년 누나의 이름도 빼놓지 않습니다. 내일 친구들과 누나들의 활짝 웃는 모습을 상상하니 이름을 주머니에 붙이는 새내기의 볼은 팬스레 붉어지며 입가에 미소가 걸립니다.

다음 날, 한동의 가로수에는 사탕꽃이 피고 식당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갓가지 사탕묶음과 편지들로 붐빍니다. 새내기들은 먹기 아까워 책상에 놔두기도 하고 친구한테 자랑도 해봅니다. 팀 남학우들에게 보내는 전체 문자 한 통도 잊지 않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우리팀이 최고예요!’

화이트테이가 있기에 팀모임이 재미있습니다. 팀이 있기에 한동은 행복합니다.



한동 생활관을 떠나, 꿈을 찾아 갑니다.

한동은 잊지 못할 나의 첫 사역지

1999년,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던 중 한동대학교 생활관에 간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할 수도 있었지만, 생활관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간사 역시 목회 중 일부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 한동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오게 된 한동에서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었네요.

한동에 와서 처음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제를 하면서 나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비전을 찾아가고, 선택해 가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더없이 행복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세대 차이일까요, 요즘은 한동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한동을 천국과 같은 곳으로 알다가, 한동에 와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한동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여전히 '대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온전히 천국의 모습만을 가질 수는 없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안주하고 있기 보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 둘씩 찾아 실천하

는 예쁜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한 학생은 학교의 쓰레기와 담배꽂이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바꾸고 싶다는 그 학생의 마음에 참 많이 감동했었습니다.

지금도, 한동에 있었던 지난 12년을 생각하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 중 하나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쉽지만 제게 참 많은 감동과 행복을 선물해주었던 한동을 뒤로 하고, 이제는 제 꿈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2002년에 우연히 서유럽에 6개월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유럽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하다 올해 3월 28

일에 아내와 함께 스위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가게 될 유럽은, 기독교 인구가 15% 내외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선교단체에서도 유럽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고, 정착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개 4-5년 동안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스위스나 독일에서 직업을 가지고 정착을 해서, 다른 자비량 선교를 원하는 분들을 돕고, 동역하여 10년 내에 한국을 시작으로 선교에 헌신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선교학교를 설립하고픈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배움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을 왜 쓰시냐고 주님께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어야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은 저에게 잊지 못할 첫 번째 사역지이자, 저의 젊음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늘 한동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팽진욱 전 생활관 간사



우리만의 새로운 생활 공동체가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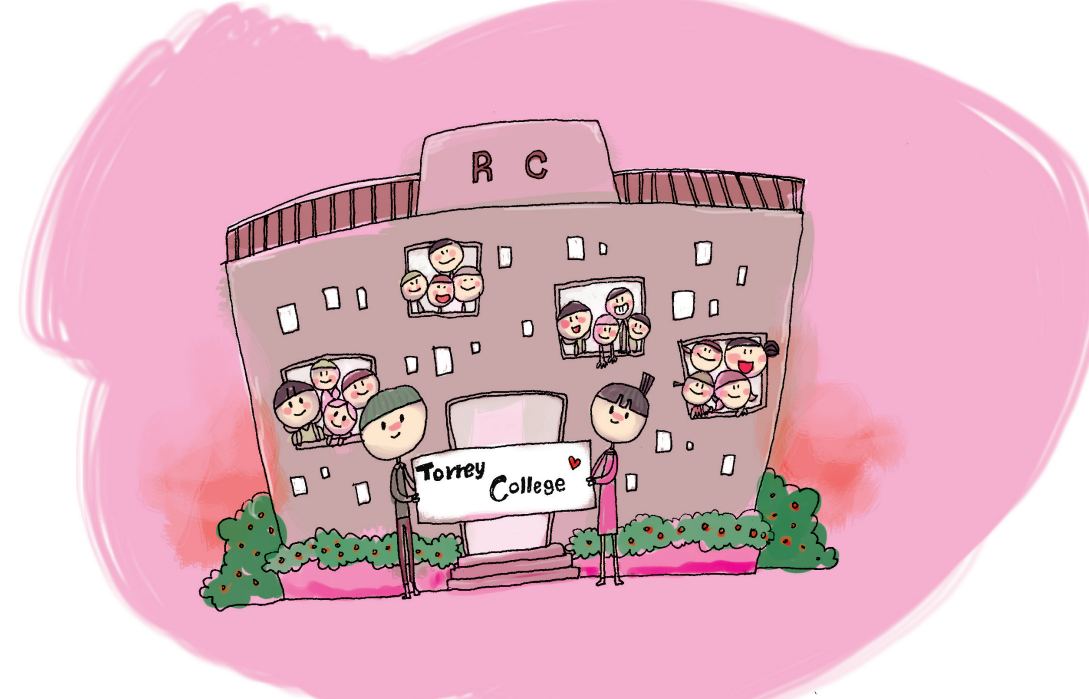
RC,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성 · 영성 · 인성의 일치를 위하여

한동대학교 안에 또 다른 대학이 하나 생겼습니다. Residential College(이하 RC)가 바로 그것입니다. RC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생활관을 한동 속 작은 미울로 만든 생활공동체입니다. 2011년 3월, 한동에 첫 번째 RC호관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은 Torrey College,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대천덕 신부님(성공회 신부, 예수원 설립자)의 성을 딴 것입니다. 한동의 새로운 교육의 장, RC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한동대학교의 교육목적은 '전인적 교육'입니다. '전인적 교육'이란 삶과 배움, 기독교 영성을 기반으로 한 인성과 지성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한동 구성원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한동은 기존의 것보다 향상된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인교육의 장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터전은 인성, 영성, 지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더 없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RC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서 간사님 2분, 목사님 1분, 그리고 12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RC관에는 총 12개의 팀, 약 400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4년간 호관 내에서만 바뀌는 팀을 만나게 됩니다. RC의 모든 팀 활동은 학생들이 주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팀 교수님들은 각 팀의 1학년들을 멘토링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동에 막 입학한 새내기들이 한동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보살피 주기 위함입니다. 교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한동의 보물입니다. 새내기들이 선배가 되어 처음 받았던 보물을 더 빛나게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RC호관의 학생들은 매주 주일 저녁마다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약 40분 간 진행되는 예배에서는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10분 정도 메시지를 전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한 학기에 한 번, 신청자에 한하여 '예수원'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그 곳에서 노동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삶과 기도의 아름다운 조화를 배워나갑니다. 이렇게 RC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활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건물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 간사님, 교수님, 목사님은 가족입니다. 총 책임 교수님이신 조준모 교수님(국제어문)은 "RC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학생들이 4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답답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학생들은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들의 목적은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입니다. 학생들과 더 많이 교제하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라고 하시며 RC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 하셨습니다.

얼마 전, RC 담당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생활관을 집처럼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생활관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액자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생활관 이곳 저곳에 걸었더니 생활관 곳곳에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학생들이 생활관에 와서 편히 쉬었으면 하는 교수님들의 따뜻한 배려 때문이 아닐까요. RC는 앞으로 한동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화되어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성장 통을 겪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겪어야 할 성장 통이라면 한동은 용기 있게 견뎌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RC: 생활관에서의 전인교육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생활 밀착형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멘토링: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승 역할을 하여 지도와 조언으로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새내기들을 향한 선배들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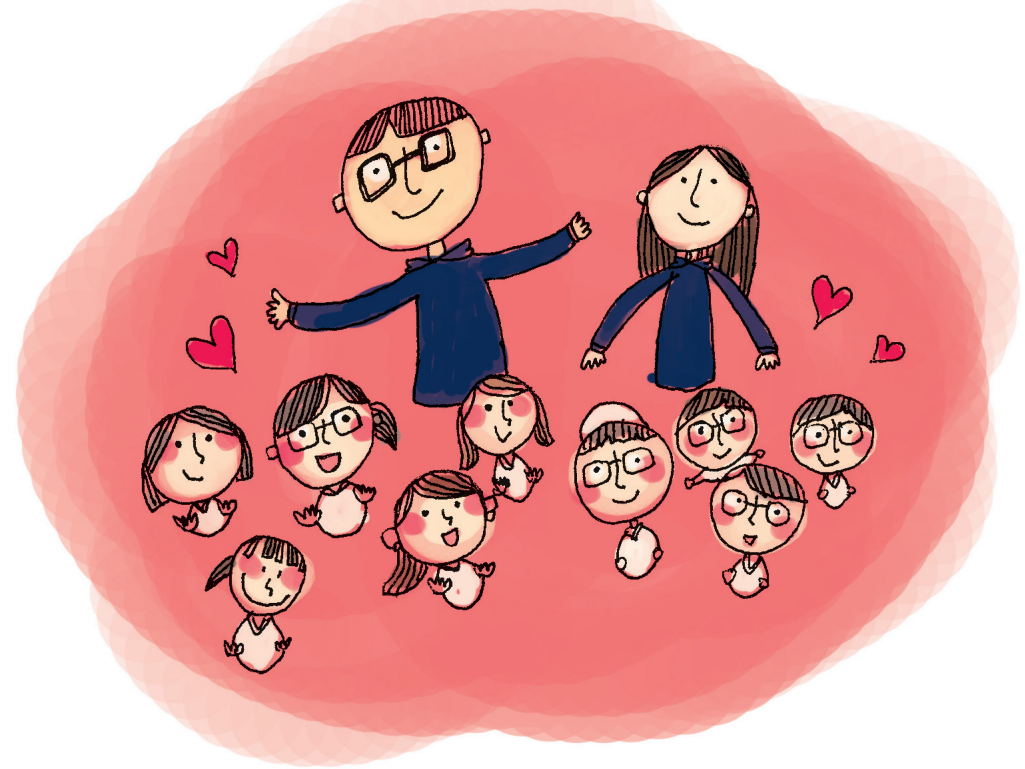
한스트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숨은 노고

지난 2월, '오직 너, 회복의 사람이여!'라는 주제로 한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스트는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동대학교만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하지만 한스트는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한동에 먼저 입학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한스트는 한동에 온 새내기들을 환영하고, 한동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동의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태프로 나섭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내기들을 만나는 것만으로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스트 스태프는 한스트를 총괄하는 감독인 디렉터, 사회자, 총무, 회계 등 한스트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 팀, 새내기들이 지내게 될 모든 공간을 예쁘게 꾸며주는 데코레이션 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획운영 팀, 새내기들의 예쁜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영상 팀, 새내기들이 한동에 처음 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팀, 새내기들과 항상 함께 다니며 돌봐주는 도우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태프들은 2학기 중에 모집되어 1월부터 한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합숙을 시작합니다. 각 팀 별로 모여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세부적인 일정을 하나하나 세워나갑니다.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갈수록, 새내기들을 만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스태프들의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차고 예쁜 한스트를 위해 밤을 새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다 보니 자신이 새내기였던 한스트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 그 때도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겠구나..'. 선배에 대한 감사함에, 곧 만나게 될 새내기들에 대한 설렘에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오르고 다시 한 번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한스트 스태프들은 하루하루 정성껏 한스트를 준비합니다.

매년 열리는 한스트지만 진행할 때마다 스태프들은 잔뜩 긴장합니다. 프로그램들이 계획대로 흘러가는지, 사고는 없는지, 새내기들의 반응은 어떤지, 각 팀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한스트가 무사히 잘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기에 한스트 기간 내 스태프들은 24시간을 긴장하며 지냅니다. 3박 4일이 정신 없이 지나가고 한스트가 끝나고, 스태프



들은 그제서야 그 동안 못 잤던 잠도 자고, 폭 쉬면서 피로도 풀립니다. 곧 학기가 시작이라 걱정도 되지만, 마음 한 켠에는 새내기들의 환한 얼굴들이 떠올라 뿌듯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2011년 한스트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한스트 스태프들은 어느덧 새내기들 틈에 섞여 재미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린도전서 1:25) 2011년 한스트를 준비하면서 붙들었던 말씀

입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빈틈도 많고 엉성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이 너무나 명백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한 한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스트의 주제처럼 11학번들이 회복하는 자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세영(경영경제 07)

■ 한스트(HanST): Handong Spirit Training의 약자로, 입학식 전 새내기 및 편입생들이 한동의 역사와 문화, 정신 등을 배움으로써 한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 스태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작진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한동을 밝히는 183명의 빛과 소금

2005년 처음 한동땅을 밟았던 날이 기억납니다. 황량한 벌판을 가로 지르고, 구불구불한 길을 버스 타고 오길 30여분. 그 동안 늘 꿈꾸며 기다렸던 한동이었지만 새내기인 저에게 한동은 낯설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웃으며 다가왔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스트 동안 늘 함께 했고, 한스트를



마친 후에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 저는 한동을 이해하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한동은 제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의 주인공은 바로 '새내기 섬김이(이하 새섬이)'입니다. 새섬이들은 한스트가 시작되기 전 새내기들을 중보하고 기다립니다. 한스트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꼼꼼히 점검합니다. 한스트 동안에는 새내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내기가 잠든 후에 하루를 정리하고 나서야 잠을 청합니다. 한스트가 끝난 후에는 새내기들과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하거나 기도회를 하는 등 영적인 면에서 함께 합니다. 또한 수강신청을 하는 법에서부터 전공 선택에 관한 학업적인 문제, 이성 고민과 인간 관계와 관련된 이성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새섬이는 새내기를 보살피고 도움을 주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새내기는 새섬이와 동고동락하며 한동 안에서 살아가며 한동을 받아 들입니다. 새섬이와 함께라면 처음 발을 내딛은 한동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183명의 새섬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새내기 섬김이 위원회의 모임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새섬이들은 학기 말이 다가옴에도 새내기 사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고학번 새섬이인 김석학우(전산전자03)는 1주일에 1번씩 새내기들과 함께 모여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졸업을 앞두고 여러모로 신경 쓸 부분이 많지 않느냐는 기자의 염려에 김석학우는 “한동으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받은 사랑들을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었다”며 “마지막 학기에 정말 섬기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답합니다. 또한 그는 “새내기들이 졸업하지 말고 다음 학기에도 새섬이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새섬이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김석학우와 함께 하는 새내기들의 밝은 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아직 한동에는 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83명의 빛과 소금들이 한동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내기들을 위해, 그리고 한동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과 함께 하는 한동은 여전히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 한스트(HanST): Handong Spirit Training의 약자로, 입학식 전 새내기 및 편입생들이 한동의 역사와 문화, 정신 등을 배움으로써 한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한동은 뭐하냐

“한동의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한동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e love You Japan, You're not alone!

지난 3월 11일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본 열도를 덮쳤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현재(4.25일 기준)까지 실종자는 1만1900여명에 이르며 1만430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죽고, 삶의 터전이 쓸려갔으며, 방사능 오염의 위협에 지금 일본 국민들은 가장 힘든 때를 겪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1주일 후 수요일 채플에서 예배를 드린 김영길 총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교수님과 교직원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일본국민들에게 전해줄 위로와 사랑을 담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손에는 양면에 'We love you, Japan'(일본을 사랑합니다)과 'You are not alone'(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학우들의 지시에 따라 한동인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리를 잡습니다. 부산하게 운동장을 움직이던 사람들은 슬슬 자신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운동장 중앙에는 사각형 속에 하트모양이 생겨났습니다. "하나 둘 셋! We love you, Japan!"구호와 함께 하얀색 하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곤 "You are not alone"이라는 외침과 함께 하트는 포근

한 빨간색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 하트와 함께 각 나라에서 온 많은 한동의 외국인 학우들이 영상을 통해 일본국민들에게 'We love you, Japan'과 'You are not alone' 플랜카드를 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에 올려져 많은 일본국민들에게 한동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일본 방송국 NHK를 통해 일본 지역에 직접 방송되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한 조명진 학우는 "영상인 인터넷에 올라가고 많은 메일과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 받았습니니다. 일본 방송국 NHK에서도 취재 중에 이 영상이 전국에 방송되고 지친 일본국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이라며 한동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1500여 명의 한동인들이 만들어낸 하트와 위로의 메시지가 일본국민들의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조명진 학우는 "영상을 되도록 빨리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틀 만에 기획과 소품 준비를 끝냈다. 2일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말 한동대이기 때



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우리의 마음이 지진으로 고통 받는 일본의 지친 영혼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로 전달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동대에 재학 중인 일본인, 이시바시 유스케 학우는 "이 영상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일까요? 살고 있던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혹은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그것도 아니면 가족의 죽음을 알았을 때 일까요?

어쩌면 가족을, 삶의 터전을, 자신의 건강을 잃은

그사실보다, 힘들고 치쳐 뒤를 돌아봤지만 자신의 아픔을 함께 나눌 이가 없음을 느꼈을 때가 가장 힘든 때가 아닐까요.

비록 지진 피해는 수 개월 안에 복구가 되고 일본 경제도 곧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죽은 가족과 이웃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의 피해와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한 피난 생활로 지치고 멎든 그들의 건강과 마음은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동인들의 영상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은 그들의 빈자리를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심을 기도합니다.



한동의 열혈청년, TREE PLANET 김형수 대표의 맑은 콘텐츠로 세상 바꾸기

안녕하세요, 언론정보문화학부 06학번 김형수입니다. 제가 학교를 떠나온 지 어느새 4년이 되어가네요. 전 2학년을 마치고 군에 다녀와서 복학을 하는데, '나무를 심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군 복무를 하면서 'TREE PLANET(트리플래닛)'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사업계획서를 썼지요. 트리플래닛의 첫 개발작인 '나무 심기 앱'은 함께 군 복무를 하면서 사업을 구상한 정민철 이사를 비롯한 네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트리플래닛은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심고 가꾼 가상나무를 지구에 실제로 심어줍니다. 나무를 심으면 영양분도 줘야겠죠? 그 영양분은 기업의 광고 아이템으로 대체됩니다. LG로고가 새겨진 태양을 나무에 드래그하면 햇빛을 주고, 현대자동차 로고가 그려진 비료도 주고, 삼성로고가 쓰인 비구름을 끌어다가 물도 주게 됩니다. 기업의 광고가 게임 속 아이템으로 활용되니 기업들도 트리플래닛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기업광고와 환경에 대한 사회공헌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거죠.



실제 나무를 심는 곳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왜 인도네시아냐구요? 바로 이곳이 세계에서 숲이 사라지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기 때문이에요. 2012년에는 그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하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역단체들과 양해각서를 맺고 4000헥타르 규모의 숲을 조성하는 계획도 세웠으니, 언젠가는 세계에서 나무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를 꿈 꾸 봅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스스로 갖고 있던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는 영상이라고 생각했고, 고등학교 때 집에 있던 8mm 캠코더로 제작한 첫 환경다큐멘터리가 LG상록재단의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상과 상금으로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틈이 날 때마다 영화를 찍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총 네 편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다양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실적으로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에 영상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죠.

제가 찍었던 첫 작품을 잠시 소개할게요. 한국의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한국에서 숲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매년 늘어나는 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땅에 묻은 뒤 그 위에 나무를 심는 수목장을 제안했어요. 제가 나무를 첫 작품의 소재로 삼고, 트리플래닛의 아이템 또한 나무로 선정한 이유는 '나무가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이폰/안드로이드폰 트리플래닛 앱은 6월에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국제규모의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와 유네스코가 트리플래닛 앱을 공식 앱으로 채택하였고, 사막화 방지를 주제로 해서 사막에 나무를 심는 앱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 앱의 경우 유네스코와 트리플래닛이 파트너십을 맺고 나무를 키우는 아이템에 물펌프가 추가되는데요, 실제로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어린이들에게 식수를 지원할 수 있는 물펌

프를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꾼다'는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의 슬로건은 제가 트리플래닛을 창업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사모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맑은 콘텐츠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트리플래닛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나무를 심음으로써,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융합 교육을 추구하는 한동대에서 배운 지식은 회사 운영부터 콘텐츠 제작, 위기 대처 능력 등을 기르는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춘구석에 있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던 숲과 바다에 둘러싸인 한동대 캠퍼스 또한 저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자연환경이 뛰어나기에 환경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기에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주는 가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에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면 복학을 할 계획이에요. 동기들이 거의 졸업을 해서 복학 후 혼자 밥 먹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웃음) 더욱 더 맑고 선한 콘텐츠를 다루며 세상을 푸르게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한동인이 되겠습니다. 트리플래닛을 중보하며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트리플래닛 CEO 김형수 드림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하는 제1회 한동 멘토링 아카데미

후배들을 향한 선배의 따뜻한 조언 이어져

2011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동대학교는 학부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멘토링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 CTS 컨벤션홀 및 아트 홀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앞으로 취업을 하게 될 재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멘토링 아카데미는 비전수립, 자아탐색, 희망직업 탐색 등 3단계의 워크숍과 졸업생 특강, 모의면접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회, KBS, 삼성, LG, 월드비전, Microsoft, 현대, 청어람 아카데미, 국민은행 등 다양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이 참여해 후배들은 현실적이고도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마케팅 전략팀 3년 차인 신새미 동문(04)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신보다 직업적 소명을 찾기 위해 더 기도하고 노력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큰 도전과 용기를 얻어간다”며 한동 후배들을 뿌듯해 했습니다. “힘든 시기일 텐데도,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후배들이 사회에 나아올 날들을 기대하고 있겠다”며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코리아헤럴드에서 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황주리 동문(07)도 한동에서 배운 것, 한동 밖에서 배운 것 등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싶은 마음으로 갔지만 떨리는 마음은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청해주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놓였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후배들이 앞으로 더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 졌다고 합니다.

재학생으로 멘토링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임예슬(경영경제 07) 학우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현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을 고민하고 있는 선배들의 진심을 알게 되어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온 선배들을 보면서 한동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뿌듯해졌다는 임예슬 학우는 자신이 졸업하고 난 후, 기회가 된다면 꼭 후배들을 만나러 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배 졸업생들의 현실적이지만 희망과 용기가 담긴 따뜻한 조언은 먼저 사회에 발을 내디딘 사회인이기에, 후배를 사랑하는 선배이기에 해 줄 수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방향과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갈 한동 재학생들은 자신도 후배들에게 그러한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기분 좋은 부담감에 저절로 힘이 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한동인들이 있기에 한동은 하루하루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 멘토링 아카데미: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승 역할을 하여 지도와 조언으로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교육 과정.

김영길 총장님 제17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장 취임, 21세기 한국 대학교육의 패러다임 제시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은 지난 3월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내년 4월 7일까지 21세기 한국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선봉장으로 앞장 서게 되었습니다.

대교협은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로 대학의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개발,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대학의 학사·재정·시설 기타에 관한 상호 협동과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이 날,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길은 대학 입시에 집중된 거대한 에너지를 21세기 글로벌 정보지식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수준의 대학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대학입시 수능 점수의 지식이 국가 경쟁력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창의적이고 실사회에 적응력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적 수준의 학부교육이 바로 고등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21세기가 요구하는 융합지식과 바른 인성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학부교육을 더욱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 대학들은 연구중심이 아니라 교육중심을 지향해야 하며,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노동력을 성장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전인적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교육은 알려지지 않은 지식을 탐구하여 해답을 찾아가는 교육,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21세기 대학교육이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발전해야 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시야와 미래의 전망을 내다보는 지혜를 가진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이 밖에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분과위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ACE)대학협의회 회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학교를 넘어 포항으로 퍼지는 커피내음

히즈빈스 2호점 개점



향기내는사람들(한동SIFE)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2008년 9월 4명의 한동인들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를 붙잡고 각자의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소외된 이웃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뭉쳤습니다. 그리하여 한동대학교 오석관 3층에 마련된 아담한 카페 히즈빈스(His Beans), ‘하나님의 카페’라는 뜻의 히즈빈스(His Beans)는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일터입니다.

이 히즈빈스가 이제 포항시내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육거리 포항시립 중앙아트홀(이하 중앙아트홀) 2층에 히즈빈스 2호점이 문을 연 것입니다. 지난 3월 2일에 개장한 히즈빈스 2호점은 8일에 개장예배를 드림으로써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장예배에서 김영길 총장님은 “1호점 개장 예배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2호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히즈빈스 2호점을 찾은 포항시민 김혜영(25)씨는 “카페 분위기도 좋고, 장애

인들이 우리와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써 일을 한다는 것에 감명받았어요”라며 “올수록 오고싶은 카페”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히즈빈스 2호점 프로젝트 매니저인 김대경 동문은 “처음에는 포항공대에 열 2호점을 기획하던 중 갑작스럽게 중앙아트홀에 2호점을 준비하게 되었고, 겨울방학 동안 ‘향기내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매일 밤을 새며 헌신한 끝에 문을 열었다”며 열리기까지 있었던 우여곡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향기내는사람들 대표 임정택 동문의 한 마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곳에서 스스로의 성공이나 안위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체험한 한동인들이 여기 증인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계속 전파하며 오늘도 소외된 이웃 한 명을 위해 땀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무대를 향한 첫걸음 2011 여름 한동대학교 영어캠프

- 레벨별 맞춤 전문영어교육
- 24시간 Care System
- 신앙과 인성을 겸비한 리더육성
- 글로벌 직업 체험

캠프개요 | 일시 2011년 7월 25 ~
2011년 8월 12일 (3주)

대상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캠프장소 | 한동대학교 캠퍼스

등록문의 | 전화 054-260-1991-3
홈페이지 camp.handong.edu

한동대학교
총장님 인사말



한동대학교는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모토 아래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써왔습니다. 이 제는 한동의 글로벌 비전을 어린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영어캠프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동캠프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교육에 소명을 가진 우수한 강사진, 봉사정신이 투철한 운영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캠프입니다. 영어실력 뿐 아니라 신앙과 인성을 겸비한 리더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2012학년도 입학 안내

한동대학교 인재상과 연계한 학생 선발 전략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	대학교육의 인재상	전형(군)별 인재상	모집단위 특성	입학사정관제 선발기준	전형(군)별 중점평가역량	전형(군)별 세부유형
국제화 및 창의적 교육 T 전공 요 인	글로벌 인재	국제화 역량 우수인재	100% 자율 전공 입학	Global I 인성 M 동기/가치관 P 성장잠재력 A 학업능력 C 창의/통섭 T 재능/특기	글로벌역량 G M P	해외학생, 해외선교사자녀, 재외국민, 외국인 및 12년 전과정
	창의적 인재	잠재력 특기 우수인재			창의역량 T C P	대인학교, 한동 G-IMPACT
	미래융합적 인재	학업능력 우수인재			종합적학업합성역량 A M P	추천학생
	자기주도형 인재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성장 잠재 역량 P I M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지역학생 농어촌학생, 기회균형, 북한이탈주민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정직한 인재					
대학의 인재상		학생 선발 전략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제 특징

- 전체 모집 인원의 80%(660명/820명)를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
- 수시전형 내 면접일이 다른 경우 복수지원 가능
- 신입생 전원 100% 자율전공, 복수전공 의무, 연계전공 가능
- 본교 인재상과 연계된 G-IMPACT 선발기준을 통해 다양한 학생선발

2012학년도 입시 일정 안내

모집구분	수시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다군)
전형유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정원외)		해외 학생	해외 선교사 자녀	추천학생	대안 학교	한동 G-IMPACT (일반학생 전형)	지역 학생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농어촌 (정원외)	기회균형 (정원외)	일반학생 (주간) [정원조정]
모집 인원	재외국민 (15명)	북한이탈주민 12년 전교육과정	60	40	인문계열 (160명) 자연계열 (120명)	30	110 전학부 자율전공	40	40	29	16	160 *수리 "기" (60명) *수리 "나" (100명)
원서 접수	7. 1(금) ~ 7. 8(금)		8. 1(월) ~ 8. 5(금)		9. 1(목) ~ 9. 15(목)		9. 1(목) ~ 9. 20(화)					12. 23(금) ~ 12. 28(수)
면접	7. 29(금)		8. 28(금)		자연계열: 10. 22(토) 인문계열: 10. 29(토)	10. 22 (토)	12. 3(토)					2012. 1. 27(금)
전형 요소	1단계: 서류심사 100%	1단계: 서류심사 100%	1단계: 서류심사 100%	1단계: 서류심사 100%	1단계: 서류심사 100%	1단계: 서류심사 100%	1단계: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50%, 면접구술 50%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70%, "학생부교과과목영역" 20%, 면접구술 10%
	2단계: 서류심사 40% 면접구술 60%	2단계: 서류심사 40% 면접구술 100%	2단계: 서류심사 40% 면접구술 60%	2단계: 서류심사 50% 면접구술 50%	2단계: 서류심사 60% 면접구술 40%							
최저 학력	없음		없음			언어, 수리,나, 외국어, 과탐(1과목) 중 한 영역 2등급 아내 또는 수리가 3등급 이내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탐/과탐 (2과목) 중 한 영역 2등급 이내 또는 수리가 3등급 이내	언어, 수리, 외국어 중 한 영역 3등급 이내			없음	
발표	8. 5(금)		9. 9(금)		11. 11(금)		12. 9(금)					2012. 2. 3(금)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안내는 반드시 2012학년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상담 (054) 260-1803~8, 1796~7, 1084~7 / 팩스 (054) 260-1809
E-mail admissions@handong.edu / 입학홈페이지 http://www.handong.edu/ipsi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번지 한동울 105호 우)791-708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강남근	김두순	김요섭	김화정	박지원	어대준	이동원	이현정	정지윤	한태진
강민규	김명아	김요한	김효정	박한은	엄보미	이명기	이해진	정지환	함지수
강준영	김미	김용욱	김휘동	박혜윤	여찬영	이명수	이희용	정초록	허영근
강진희	김미경	김용일	나광호	박희숙	염명희	이병선	이희윤	정희준	허철호
강천수	김미령	김용준	나병천	반해광	염준길	이상경	이희필	조규방	허혜영
강희연	김미숙	김용한	나영찬	배원수	오경희	이상락	임남수	조남숙	현미자
경용이	김미영	김우석	남성일	배중현	오바울	이상민	임달호	조남웅	현승엽
고경순	김민정	김유비	노경덕	배철호	오본열	이상봉	임상윤	조민환	홍길란
고봉민	김부목	김유정	노기선	배홍건	오수현	이상실	임순권	조삼정	홍성찬
고순국	김분자	김윤연	노명진	배홍민	오승엽	이성재	임연숙	조선희	홍순창
고승보	김사라	김은혜	노희선	변주섭	오재수	이소영	임창섭	조세용	홍유정
고영수	김삼성	김장석	노희정	서민정	오정봉	이수민	임평화	조승현	홍진표
고정이	김상범	김장섭	류상점	서성민	우민희	이양구	임향빈	조윤진	홍혜란
고진선	김상엽	김재관	류은광	서예스더	우식	이요한	장영출	진예령	황광석
고향자	김석현	김재훈	문한솔	서용원	우정훈	이용현	장유식	진윤섭	황규인
곽경환	김선옥	김정욱	민석준	서인석	원다연	이용호	장재하	차유림	황미하
곽상호	김선주	김정인	석희진	원보람	이원모	장하은	장하은	차창수	황소철
구쌍순	김선희	김정희	박기홍	선우대웅	유광복	이원재	전도연	채덕매	황예빈
구행진	김성균	김종민	박당굴	설명기	유승민	이원호	전은선	천규성	황용범
국상기	김성준	김종민	박명수	성소연	유승혜	이은아	전제일	최도경	황유민
국승택	김성태	김주안	박문석	성소영	유주연	이은영	전중환	최문기	황은주
국현기	김소영	김주영	박민석	성재환	유철영	이은희	전창기	최선영	황장근
권의정	김솔	김주희	박민정	손석호	유한숙	이재혁	전태환	최술라	황호문
권일훈	김수지	김준영	박상찬	손승현	유희영	이정국	전현명	최수민	Helen Mae Sterk
권정임	김수현	김지혜	박서현	손진희	윤기숙	이정완	전희선	최숙영	(주)드림
권지은	김솔기	김진국	박선교	송기현	윤소미	이정화	정경	최영옥	(주)엘피스글
권효순	김승구	김진숙	박선옥	송옥자	윤소영	이주연	정경섭	최영일	(주)조선에듀케이션
길옥윤	김승범	김진우	박선하	송진옥	윤윤희	이주원	정광호	최영자	(주)태영건설
김감사	김양수	김진호	박순영	신강동혁	윤준필	이준영	정권재	최영재	메가스터디(주)
김강현	김연수	김찬욱	박신영	신성애	윤필상	이지혜	정규찬	최영환	한국교과서주식회사
김경의	김연정	김창영	박영지	신영숙	윤혜상	이진규	정다람	최예람	코드코드스쿨화
김경호	김영길	김철봉	박영화	신옥례	윤혜원	이진봉	정다은	최용관	대원자동차정비
김고운	김영란	김춘희	박용진	신정식	윤희영	이찬구	정미경	최은혜	충만교회
김광연	김영민	김태현	박원섭	신종인	이경아	이창우	정민을	최정아	평강교회
김권녀	김영민	김하진	박은지	신종철	이경주	이철미	정영연	최진경	중소기업은행
김규현	김영숙	김한구	박인정	신현옥	이경환	이철호	정영화	최현숙	새로남교회커피숍
김규호	김영숙	김향균	박일하	심재수	이광진	이준옥	정원재	표성규	영어몰닷컴(이순재)
김기락	김영식	김해숙	박진명	안동수	이규수	이종일	정유진	하기수	우리가정의학과의원(오철동)
김기태	김영신	김현옥	박정애	이규진	이필재	이필재	정윤성	하외숙	무명 및 익명자 48명
김기훈	김영인	김현철	박정희	안신자	이근배	이하은	정은우	하태령	
김남진	김영주	김현태	박종우	안희두	이근영	이한업	정의영	한시경	
김대수	김영준	김형모	박종혁	양다영	이근하	이향아	정자현	한시은	
김덕윤	김영진	김형울	박준희	양동순	이금성	이현민	정정오	한정애	
김도중	김은유	김혜숙	박지숙	양윤희	이기열	이현숙	정지우	한천수	

후원안내

갈대상자

한동대학교는 갈대상자와 같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가 후일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듯이 새로운 소망 한동대학교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동대학교에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꿈, 그가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의 갈대 한 올 한 올처럼 기도와 후원의 한 손길 한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 후원금액 : 1,000원 이상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 TimWork(팀워크) :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디모데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한동에서는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공부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한동에서 다른 학생들과 더불어 생활하며, 지식과 정직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졸업 후 본국에 돌아갈 이들은 그곳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님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청년 리더의 양육을 위한 바울이 필요합니다.

■ 후원금액 : 10만원

보아스

'어머니의 하나님이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으로 타향살이를 하게 되고, 흑심한 흉년으로 굶주리던 롯 앞에 곡식자루가 쏟아졌습니다. 그녀 앞에 선 보아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비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동대학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보아스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과 함께 하는 한동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아스를 부르고 계십니다.

■ 후원금액 : 100만원

건축기금

한동은 세계 각국에서 차세대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닦기 원하는 청년들이 꿈을 품는 곳이자 양육되는 또 하나의 작은 세상, 글로벌 타운(Global Town)입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은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한동의 글로벌 타운은 지금 이 순간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솔로몬을 통해 방주와 예루살렘 성전을 예비하셨듯이 후원자님의 지원과 격려를 통해 한동에 글로벌 타운이 완성될 것입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함께 한동의 청년들이 자라나길 희망합니다.

지정기부

한동대 발전기금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임하는 일반발전기금과 사용용도를 지정한 지정발전기금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발전기금은 기부자가 직접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갈대상자 후원가입

후원가입, 정보변경, 종료안내

1.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를 통한 신청
2. 직접 신청은 한동대 발전협력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과 세금

한동대학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소득의 100%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교 발전협력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동대학교 발전협력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번지
전화 : 054-260-1063~4
팩스 : 054-260-1069
E-mail : papyrus@handong.edu
<http://sarang.handong.edu>

미국 LA H.I.F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Cornerstone Church 내 위치)
24428 South Vermont Avenue, Harbor City, CA 90710 USA
전화 : 310-530-4040
팩스 : 310-530-8400
E-mail : lahandong@hotmail.com

후원자님의 주소가 변경되셨을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반송 우편료가 절약되어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사업에
더욱 소중히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대 엮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과 비전을 품고 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 갈대상자를 엮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따뜻한 손길을 통해
황량했던 캠퍼스가 초록빛으로 채워져 갔고
하나님의 인재들이 양육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믿음의 갈대 한 올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청년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